경제지표 악화에 따른 추가 양적완화정책 관심 확대

김세중 선임연구원

- 미국의 실업률이 두 달 연속 상승하고 제조업지수도 13개월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하는 등 경기회복세 둔화 조짐이 확대되면서 연준의 추가 양적완화정책 시행에 대한 기대가 증가함.

  - 노동부는 6월 3일, 5월 실업률이 9.1%로 두 달 연속 상승하고 신규 일자리수도 5만 4천 개로 지난 3개월간 평균인 22만 개보다 축소되었다고 발표하였으며, 미 공급관리협회(IMS)는 6월 1일, 5월 제조업지수가 13개월 만에 최저 수준인 53.5로 하락했다고 발표함.
  - 씨티그룹의 그랙 앤더슨은 2차 양적완화 정책이 발표되기 직전과 마찬가지로 최근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이 동조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유로화대비 달러화 가치가 빠르게 하락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는 시장이 추가적 양적완화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함.
  - 한편 연준이 추가 양적완화 정책 시행을 검토하기에는 이르다는 의견도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6월 7일 버냉키 연준 의장은 경기회복세가 둔화됨에 따라 통화정책 완화기조를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으나 추가 부양책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다우지수가 하락하는 등 금융시장은 실망감을 나타냄.

  - 버냉키는 고유가와 일본 대지진에 따른 원전사고가 상반기 경기회복세 둔화의 주요인이라고 지적하고 하반기에는 이들 요인이 소멸되면서 경기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전망함.
  - 또한 경기회복세가 부문별로 고르지 못하고 고용부문의 회복속도가 매우 느리며 경제성장률이 여전히 잠재성장률을 밑돌고 있기 때문에 통화정책 완화기조를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발표함.
  - 그러나 버냉키는 추가 부양책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추가 양적완화 시행 가능성 기대로 상승하던 다우지수가 하락세로 반전되는 등 금융시장은 실망감을 나타냄.

(Financial Times 등, 6/7)